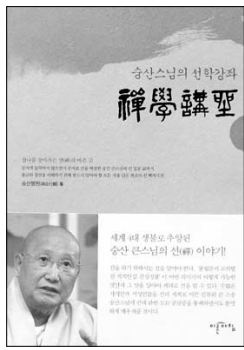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던 승산 스님(사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에 능통했던 스님들도 못했던 끈묵함만한 해외포교 성과와 수많은 벽안의 제자를 길러낸 힘은? 서양의 지성인들을 단박에 굴복시킨 승산 스님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상 공경해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이 최근 나왔다.

# 벽안의 제자 길러낸 禪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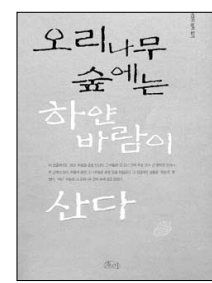


**승산 스님의 선행강좌** 승산 스님 지음 | 이문아침 펴냄 | 1만5000원  
40년전 승산 스님이 쓴 최초 선 백과사전  
열반 1주기 맞춰 현대적으로 손질해 발간

고, 명쾌하면서도 조리정연하게 설명한 내용이 들어있는 <승산 스님의 선행강좌>는 1966년 간행한 최초의 선 백과사전이다. 승산 스님 1주기를 기해 현대에 맞게 고쳐 새롭게 펴낸 이 책에는 선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심도 있게 풀어낸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의 발달과 전통 등 선의 근본에서 선의 좌선 및 참구법, 선을 둘러싼 공금증과 자기당착으로 보이는 모든 모순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승산 스님이 <선행강좌>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의 근원과 본선 그리고 장차 나아갈 바를 정확히 깨우칠 수 있다면 누구나 해탈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불교의 근본 원리라는 것이다. 스님은 이처럼 마음의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하는 불교사상에 입각하되, 몸과 마음에 더 익숙한 현대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을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실질적인 교훈을 전해 준다. 스님이 가질 수 있었던 선의 힘, 그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깨우침의 실상을 목격하고 싶다면 <

승산스님의 선행강좌>가 좋은 안내자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부딪치더라도 단박에 모든 것을 깨쳐 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선의 참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승산 스님의 제자인 승공 스님(화계사 주지)은 발간사를 통해 "스님이 만사에 막힘이 없었던 것은 참선의 힘이었다. 선을 닦는 제법남자나 선에 관심을 가진 초심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승산 스님은 1927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947년 충남 마곡사로 발심출가하여 행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1949년 예산 수덕사에서 고봉 대선사로부터 전법계를 받았으며, 1972년 미국 프로비덴스의 재미 흥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여국에 120여 선원을 설립했다. 스님은 생전에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으며, 84년 세계평화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2004년 11월 30일 서울 화계사 연화실에서 원적으로 들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산다  
서연 지음  
호미 | 10000원

'도시인의 몸을 버리고 농부의 몸을 선택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싶다.' <오리나무 숲에는 하얀 바람이 산다>는 흥화농사를 지으며 평창강변에서 살아가는 서연(前 방송국 PD)씨의 농사 일기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농막에 불을 켜고'라는 제목으로 2년간 연재된 32편이 실려있다. 서씨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귀농이란 무엇이며, 그 땅으로의 귀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체험과 사색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농사를 통해 사색한 노동과 자연, 자유, 직관, 생명, 무위, 여타의 명상 등 인간의 근원적 존재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자연속에서 만난 동식물과 농작물의 성장 및 생태이야기 등 숭고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답고 지순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다.

## 있는 그대로 어여쁜 땅이여 사람이여

책을 들여다보면 첫째 묶음에서는 귀농하여 만나게 된 농작물과 야생초의 성장과 생태를 깊이 있게 관찰한 내용이 들어있다. 둘째 묶음은 '흐름'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편지글 형식으로 옮겨 적은 '은자의 법문, 흐름을 다르라' '노동선과 불교의 세계관' 흐름과 농을 그리고 느낌'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주제에 맞는 일화와 인용문을 활용한 세 번째 묶음은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필자의 사색이 담긴 산책 같은 글모음이 돋보인다. 해주선사와 무위당 장일순, 해월 최시형의 일화를 비롯하여 불가의 이야기, 선화, 민담과 근대의 선승 경허 등의 일화가 알맞게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묶음은 앞으로 필자가 사색할 선이나 명상의 원리를 다룰 때 천착하게 될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소설의 시점과 명상의 원리'라는 주제의 들머리에 해당하는 글들이다. 자연과 인간을 사색하는 농부의 붓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찾은 실존적 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지은이는 이책을 통해 진정한 '나'는 무엇이며, 그 '참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깨달음에 이르는 길 지영사, 총리파, 4만3000원  
· 금강경(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운주사, 김광하, 9000원  
· 신들의 땅에서 찾은 행복 한 줄 바울, 문윤정, 1만원  
·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 조계종출판사, 편집부, 1만5000원  
· 달라이 라마의 반야심경 무우사, 달라이 라마, 85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새로운 책

#### 불교가 없었다면 나는?

■ 문암한가집(도허 스님 지음, 문암사) = '불교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남이 날 잘 꾸짖어주고 평가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나에게 영약이 란 점 바로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땀땀 못했을 것이다.' 대구시 달성군 문암사 주지 도허 스님(前 조계종 종회의원이 수행하며 틈틈이 쓴 시와 글을 묶어 <문암한가집>을 발간했다. <문암한가집>에는 스님이 일타 스님의 열반에 충격을 받고 지은 '나의 화두', 아침공양을 하다 상좌가 생각나 지은 '홀연히 생각나', 숨은 도인 지월 스님을 추모한 '현세에 어린이가 대도시였나' 등 137편이 실려있다.



#### 20대 예수의 삶 설명

■ 오메시아? NO!(문화영 지음, 아루이) = 명상수련가이며 작가인 문화영씨가 호수수련을 통해 파장의 원리를 활용,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100문 100답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예수의 결혼설 자손설 등으로 화제를 모은 <다빈치코드>가 절반만 맞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성경에 누락된 20대 예수의 삶을 설명한다. 동쪽으로 가면 세상공부를 하다 인도에까지 다다랐고 불교가 이미 자리잡고 있던 인도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 지혜로운 인생 열어주는 삶의 나침반

젊은이 눈높이에 맞춰 주제 내용 선별해 풀이

"길고 짧고, 넓고 좁고, 높고 낮음이 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채근담>에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복잡 다단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삶의 나침반'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7년 저술한 <한용운 채근담 정선강의>를 현대에 맞게 고쳐 쓴 <한용운 채근담-마음의 사색>이 나왔다.

명나라 흥명명의 '채근담'을 한용운 스님이 풀이하고 성각 스님이 옮긴 이 책은 다른 고전과 달리 그 뜻이 쉽고 명쾌하여 우리가 일상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충고이자 안내서다.

그래서 나무 뿌리(棠根, 채근)를 씹어 먹듯 담담하게 이야기(諷, 諷)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기 삶을 편안하게 영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채근담>은 동양 최고의 지혜서로 꼽힌다.

또한 채근담에는 역경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 인간관계에 대한 현명한 판단,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정신 등에 관한 경구들이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다. 일생을 불꽃같은 열정으로 살다 간 독립지사 한용운 스님의 해설이 이 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각종 관계로 얽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냉철한 통찰과 수신의 덕목들이 말바탕에 깔려 있는 채근담은 원래 유교·불교·도교를 골고루 바탕으로 한 책인



만해 한용운 스님



한용운 채근담  
한용운 지음  
성각 스님 옮김  
부글북스 | 1만1000원

데 한용운 스님이 집필하다보니 불교 색채가 짙게 나온다.

특히 '탐욕은 없애라' '남의 원망을 사지말라' '정신을 집중하라' '원한을 잊으라' '남을 탓하지 말라' '자유자재하라' '입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을 비워라' '집착을 놓아라' 등 한용운 스님의 삶에 대한 명철한 철학이 돋보인다.

스님은 채근담을 통해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신조와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만 일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폐쇄된 시대를 살아가는 깊은 고뇌가 느껴지고, 또한 인생에 대한 달관기 어보인다.

책의 내용은 1부 마음의 사색 <수성,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심신을 수양하고 성찰>, 2부 지혜의 연못 <응수, 일체의 대상과 접촉하고 대응>, 3부 거울 속의 나 <평의, 사람과 사람간의 올바른 토론을 통해 나를 키운다>로 되어 있다.

이어 4부 시간의 여유 <한저, 여유로운 생각이 사람을 키운다>, 5부 삶의 고통을 이기는 법 <개론,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고통, 그것은 욕망때문이다>등 다섯편으로 나뉘어 실려있다.

번역한 성각 스님(원각선원장)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가려 뽑아 현대어법에 맞게 풀이를 했다"며 "읽는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의역도 과감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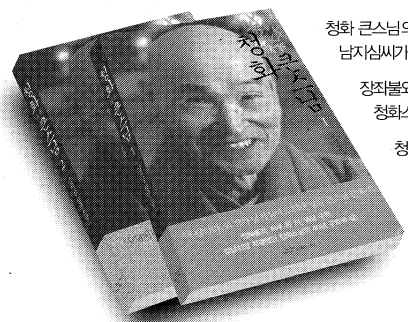
랜덤아우즈중앙 필치면 보이는 새로운 세상 www.randombooks.co.kr

구원문의 02-3705-0108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이 그려낸 청화 큰스님 일대기!

장좌불와, 하루 한 끼, 토굴 수행, 칼날처럼 치열했던 청화스님의 40년 구도의 길

청화 큰스님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가 가신 도인(道人)이다. 자리에 놓지 않는 장좌 불와의 수행을 평생 지켜왔던 청화 큰스님. 그는 도교의 실체를 증명한 우리 시대의 선승이자 스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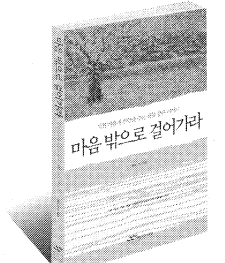
청화 큰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랜덤아우즈 소설로 재구성된 뛰어난 소설 베스트셀러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가 '전설적 수행승 이 아닌' '인간적 구도자로서의 스님을 되살렸다.' - 중앙일보  
장좌불와, 토굴 수행을 하며 당대의 선승으로 꼽힌 청화스님(1924~2003)의 일대기 신동으로 주목받던 청화스님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이후의 칼날 같은 구도의 길을 생생하게 전한다. - 경향신문  
청화 큰스님의 족적은 인조이 육신을 가지고도 생물을 할 수 있다는 살날같은 기대가 허락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 서울경제신문

남지심 지음 | 전2권 | 신국판 | 각권 8,500원

## 남지심 장편소설 청화 큰스님 1·2

###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샘물 같은 이야기

매 순간 행복하게, 매 순간 후회없이 사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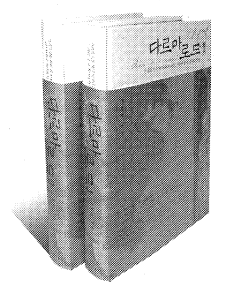


### 마음 밖으로 걸어라

정액 스님 지음 | 225쪽 | 값 9,800원

### 인문과 불교계가 격찬한 최고의 불교 성지 순례기!

진리의 길을 따라 퍼져나간 2,500년 불교 역사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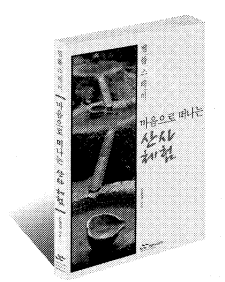


### 다르마로드 1·2

조병환 지음 | 각권 400페이지 내외 | 각권 값 32,000원

###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산사로의 여행

전국 21개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완벽정리!



###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체험

유철상 지음 | 265쪽 | 값 12,000원